| 산업통상자원부 | **보 도 자 료** | http://www.motie.go.kr |
|---|---|---|

**2018년 7월 4일(수) 조간부터**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7. 3(화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| 배포일시 | 2018. 7. 2(월) | 담당부서 | 산업일자리혁신과 |
|---|---|---|---|
| 담당과장 | 최연우 과장(044-203-4220) | 담 당 자 | 차세운 사무관(044-203-4224) |

# 산업부, 노동시간 단축 동향점검 회의 개최

## - 업종별 준비상황 및 현장안착 방안 논의 -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7. 3.(화)에, **이인호 차관** 주재로 주요 업종별 협·단체와 함께 **'노동시간 단축 동향점검 회의'**를 개최했다.

○ 이번 회의의 목적은, 7. 1.부터 시행*중인 노동시간 단축(주 68→52시간) 관련 **업계의 준비상황을 점검**하면서, 노동시간 단축을 **산업 현장에 원활히 안착시키기 위한 방안**을 논의하기 위함이다.

* 시행시기 : **(300인 이상) `18. 7. 1.** (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`19.7.1)
(50~300인미만) `20.1.1 (5~50인미만) `21.7.1

**※회의 개요**
○일시/장소 : 7.3(화) 16:00, 생산성본부
○참석자 : 산업부차관(주재), 13개 업종별 협·단체
* 반도체, 디스플레이, 가전, 자동차, 자동차부품, 조선, 철강, 석유화학, 정유, 섬유, 뿌리, 일반기계, 바이오

□ 이인호 차관은, **노동시간 단축**이 **"일과 생활의 균형"** 보장을 통해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**시대적 과제임을 강조**하면서, **업계에서도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**해 우리 경제·사회 선진화에 앞장설 것을 당부했다.



□ 업종별 협·단체들은, 많은 기업들이 **생산성 향상, 유연근로시간제 활용, 고용 증가** 관련 계획을 수립·시행하는 등, 업계에서도 노동시간 단축에 협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설명했다.

○ 다만, **추가 인력을 확보**하기 어렵거나*, **단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근무****하는 인력을 운용하는 기업 등의 경우, 단축 노동시간을 준수하는 데에 **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**고 애기하면서,

* 구인난 등으로 인력이 부족하거나, 숙련·전문성이 높아 대체하기가 어려운 인력 등

** 납기 준수를 위한 연장근로가 빈번한 수주형 생산업종, 신제품·신기술 개발기의 R&D인력, 석유화학 유지보수 인력(정기보수 기간 중), 해상 시운전 인력 등

- 해당 기업의 애로를 경감하기 위해 정부에서 **탄력적 근로시간제** 등 **관련 제도의 개선을 검토**할 것을 요청했다.

**※업종별 제기사항 요약**

| | |
|---|---|
| **섬유** | - 노동시간 단축에 대비, 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책 검토 필요 |
| **뿌리** | - 수주형 업종의 특성상, 납기가 임박할 때 장시간근로 발생 가능<br>- 노동시간 단축에 대비, 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책 검토 필요 |
| **조선** | - 수주형 업종의 특성상, 납기가 임박할 때 장시간근로 발생 가능<br>- 시운전 등 일부 직종은 일정기간 동안 근무강도가 비교적 높음 |
| **기계** | - 수주형 업종의 특성상, 납기가 임박할 때 장시간근로 발생 가능 |
| **반도체 디스플레이 가전** | - 반도체 생산라인 등은 노동시간 단축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음<br>- 중소 장비업체 등은 주문생산 비중이 높아, 장시간 근로 발생 가능<br>- 신제품·신기술 개발기의 R&D인력은 근무강도가 비교적 높음 |
| **정유 석유화학** | - 평상시에는 노동시간 단축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음<br>- 정기 대보수 기간에는 관련 직종의 근무강도가 비교적 높음 |
| **자동차 (완성차)** | - 평상시에는 노동시간 단축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음 |
| **자동차부품** | - 수주형 업종의 특성상, 납기가 임박할 때 장시간근로 발생 가능 |
| **철강** | - 노동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은 중소·중견기업 일부에 영향 가능 |
| **바이오** | - R&D인력 운용에 영향 가능 |

try of Trade,
try and Energy

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8-07-03 11:21:42

□ 이인호 차관은, 정부에서도 기업에 대한 **인건비 지원을 확대**[*]하고 노동시간 단축 시행 초기(6개월)에는 **계도 활동에 집중**[**]하기로 하는 등 기업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,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.

* '일자리 함께하기 사업' 확대·개편
- 300인 이상 기업 : 지원가능금액 인상(月 40→60만원), 재직자 임금보전 지원대상 확대
- 300인 미만 기업(선제적 단축기업) : 지원가능금액 인상(月 80→100만원), 지원가능기간 연장(2→3년)

** 근로감독 등의 과정에서 노동시간 위반이 확인되어도, 최장 6개월까지 시정기간 부여

○ 아울러 **탄력적 근로시간제**와 관련해서는, 실태조사를 통해 업계 애로사항을 파악한 후 현행 제도상 **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될 시**에는 **개선방안**(단위기간 연장 등)을 **협의**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.

□ 이인호 차관은 **노동시간 단축**이 **산업현장에 원활**히 안착될 수 있도록, 업계 동향을 점검하고 기업인 의견·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한 **현장과의 소통 활동에 매진**할 예정임을 강조했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일자리혁신과 차세운 사무관(☎ 044-203-422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